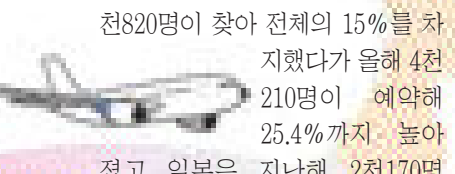


설연휴 中·日 항공권 동났다

해외여행객 작년보다 광주·전남 20%, 전국 40% ↑ 연휴 짧아 '단거리 상품' 인기...골프이용객도 증가세



중국, 일본 등 단거리 지역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항공권을 비롯한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전년 대비 광주·전남 20% 증가를 비롯 전국적으로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6~19일까지 해외로 출발하는 일반 여행객은 지난해 설 연휴(4일) 예약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골프여행객은 20% 가량 증가했고, 행선지는 주로 중국과 태국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여행객들은 중국의 북경, 상해, 항주, 소주와 장가계, 일본의 큐슈와 북해도, 방콕, 파타야 등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여행객은 중국 해구(해남도)를 찾는 이들

이 대부분이었으며 태국과 필리핀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년 설 연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광주·전남지역 일반 여행객 예약과 달리 전국의 일반여행객 예약은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지역 여행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항공권이 거의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로 출발하는 여행객은 지난해 설 연휴(4일)에 비해 39.7% 늘었으며 예약자의 47.4%가 골프와 관광 등을 위해 중국과 일본을 찾는 예정이다.

하나투어가 최근 2년간 설 연휴 해외여행상품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12일 기준으로 올 설 연휴에

외여행 예약자는 1만6천518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때의 1만1천816명보다 39.7%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패키지 여행이 1만4천263명, 단체여행 761명, 골프 679명으로 집계됐다.

골프 여행의 경우 지난해 설 연휴에 580여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여행지역은 올해 동남아 지역이 6천745명(40.8%)으로 지난해에 이어 설 연휴 최대 휴양지로 꼽혔지만 지난해 6천283명(53%)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대신에 10만원짜리 항공권이 등장한 중국과 환율 하락으로 여행비가 싸진 일본 지역의 예약자가 크게 늘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설 연휴에 1

천820명이 찾아 전체의 15%를 차지했다가 올해 4천210명이 예약해 25.4%까지 높아졌고 일본은 지난해 2천170명(18%)에서 올해 3천642명(22%)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업계 또한 설 연휴에 전세계를 띄워 고객 유치 작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인천-가고시마와 인천-후쿠오카에 이달 중 각각 6회씩 추가 운항하며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7일 인천-미야자키에 2회, 인천-도쿄는 16일과 19일에 각각 4회씩 추가 투입한다. 아시아항공과 대한항공의 중국, 일본 노선 예약율도 90% 후반대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설 연휴가 짧은 데다 경기 침체로 일반 여행객 수는 증가하지 않아 예약이 남아있고 골프여행객만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해 중국 해남도 등 비행기 티켓은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자동차가 7~1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07 시카고 오토쇼'에서 뉴카렌스(수출명·론도)의 스포티 컨셉트 모델인 '뉴카렌스 SX'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2700cc 6기통 가솔린엔진을 장착했으며, 최근 국내에 출시된 세라토 SX 등에 적용된 메탈 메쉬타입(그물모양)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다. (기아제공)

중소 61% "내수부진 해외서 활로 모색"

자금조달·신용보증 등 정부 지원 원해

내수 부진과 원화 강세로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중소기업 238개를 대상으로 '내수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전략 실패'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86.1%가 '현재 해외진출을 하고 있거나 향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해외진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업체는 13.9%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진출 사유로는 '현지시장 확보'

(37.8%), '저렴하고 풍부한 해외인력 활용'(19.6%), '현지의 저렴한 원자재 및 부품조달'(12.7%) 등을 들었다.

응답업체들은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19.6%), '진출 현지에 대한 마케팅·시장 관련정보 부족'(16.7%), '해외진출 절차 등 관련 정보 부족'(11.3%)을 꼽았다.

또 응답업체의 21.8%가 '내수를 축소하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인 반면, '수출을 축소하고 내수를 확대할 계획'인 업체는 8.4%에 그쳤다.

응답업체의 66.8%는 가능하면 '수출·내수 모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수출전환 사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60.7%가 '내수 부진으로 수출에서 활로를 개척기 위해'라고 답해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확대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38.8%)와 '해외마케팅 역량 부족'(22.9%), '낮은 수출채산성'(13.2%)을 들었다.

정부나 유관기관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으로는 '국내 자금조달, 신용보증 지원'이 22.1%,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과 '자문 및 투자파트너 선정 등 실무사항 컨설팅'이 각각 16.4%였다. /이종태기자 jilee@

쌀 직불금 가마당 1만9,000원

농림축산물 수출 1억弗 전망

유자음료·복분자·밤 등 인기

전남도 작년보다 12% 증가 예상

정부가 지난해 생산된 쌀 한 가마니당 1만9천원의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림부는 2006년산 쌀 소득보전 '변동 직불금'으로 가마니(80kg)당 7천537원, 1ha당 45만9천757원을 다 음달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산 쌀 한 가마니(80kg)당 정부가 지원하는 쌀 소득 직불금은 작년 10월 이미 지급된 '고정 직불금' 1만1천475원까지 합해 총 1만9천12원이 됐다.

또 지난해 농업인이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해 얻은 평균 수입은 산지 쌀값 14만7천715원에 직불금 1만9천12원을 더해 16만6천727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존 운영되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제도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도 농림축산물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억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림축산물 수출은 2005년보다 12.4% 증가한 9천961만8천달러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무난히 1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0억5천800만달러로 전년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전남의 이같은 수출 증가율은 전국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수출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유자음료 4천571만2천달러(263% 증가), 복분자(주류 포함) 1천175만5천달러

(14.1% 증가), 닭(오리)고기 1천71만2천달러(113.9% 증가), 밤 241만1천달러(11.7% 증가), 매실 108만5천달러(754.3% 증가) 등이다.

채소류 등 신선 농산물은 주요 수출품인 일본의 엔화 하락과 잔류농약 검사 강화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3천984만1천달러, 중국(홍콩 포함) 2천499만2천달러, 미국 2천144만달러, 대만 893만1천달러, 기타 441만4천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출 신장률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농수산식품 해외관측 사업,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무역교류단 파견 등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공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진돗개진도축협 6개월 업무정지

진도군에 있는 진돗개진도축협이 경영부실로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유동성자금의 부족 때문에 예금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진돗개진도축협에 대해 12일자로 조합의 사업 및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현재 진돗개진도축협은 25억원의 자본잠식과 함께 부실액 규모도 39억원에 달하고 있다.

진돗개진도축협의 사업정지기간은 12일부터 오는 8월11일까지 6개월로, 이 기간동안 조합원과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농협 학교급식시장 40% 점유

年 100억원 이상 급성장 최대 공급처로 자리매김

전남농협이 학교급식 1시간 1농협 육성사업을 통해 전남지역 학교급식 최대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시·군 60개 지역농협은 1천596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등에 328억원 어치의 식재료를 공급했다. 이는 지난 2005년 207억원보다 58.7%나 늘어난 액수다.

학교급식사업은 2003년 2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96억원, 2005년 207억원, 2006년 328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 급성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농협의 식재료 매출액은 전남지역 학교급식시장 820억원의 40%를 점유한 것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분석에 따른 가공식품·수산물 점유율이 50% 수준인

을 감안하면 농협을 통한 순수 농산물 학교급식 점유율은 70%를 웃돌 것으로 분석된다.

종류별 납품실적은 과일채소 105억원(32.1%), 양곡 87억원(26.6%), 축산물 72억원(21.9%), 농림김치 14억원(4.3%) 순이었다. 또 친환경농산물은 총 납품액의 46.8%인 153억원 어치가 공급됐다. /이종태기자 jilee@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원가절감 100% 가격은 80%

● 배터리역사,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배터리는 자동차, 산업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원가를 절감하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신 기술을 통해 배터리의 원가를 10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80%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역사의, 그걸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배터리 역사의, 그걸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배터리는 자동차, 산업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원가를 절감하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신 기술을 통해 배터리의 원가를 10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80%로 낮출 수 있습니다.

02/3664-1066

2007년 신재생에너지지원시스템 국가 보조사업 안내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및 규모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기간
4. 신청절차
5. 지원금 지급

02-3664-1066